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 대축일

기도서 317 면

제1독서 : 창 세 14, 18-20
제2독서 : 고린전 11, 23-26
복 음 : 루 가 9, 11b-17

숲 정 이

발행처 천주교전주교구
편집인 홍보국
인쇄처 관리국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6
전주 교구청
☎ 0041 · 0042 · 0043

□ 강론

먹어야 산다

박인호 신부



육체적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음식을 먹어야 하듯이 우리 안의 영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 예수께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고, 나는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릴 것이다(요한 6,54).”라고 하셨다. 예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양식은 곧 당신 자신이며, 빵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현존하여 계신다. 우리는 이 생명의 양식을 먹고 살아간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의 빵을 먹고 사는 신비로운 삶을 살고 있다. 이같이 예수님은 고성능 천상 양식으로 허약하고 병든 인간에게 신성한 약을 주셨다. 우리는 이 약을 먹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합일(合一)하고 그리스도로 변화케 되는 놀라운 힘을 얻게 된다. 제2의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의 분신이 된다.

예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마태 28,20)고 하셨다. 이는 당신의 한없는 사랑을 나타낸 것이다. 즉 성체성사의 묘한 방법으로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만나고 있다. 성당의 감실 안에 현존하여 계시면서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와 항상 같이 계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많은 신자들이 세례를 받았으면서도 성체의 중요성을 모르고, 모시지 않는 사람이 많은 것 같다. 잔치집에 참여해서 음식을 먹지 않고 그냥 나오는 사람은 뭔가 이상한 사람이다. 핵심을 빠뜨린 것이다. 미사는 천상잔치다. 이 잔치에서 성체를 먹지 않음은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린 것이다.

그리고 성체를 아무런 준비도 없이 확고한 믿음도 없이 아무렇게나 받아 먹는다면 그는 성체를 받아모신 것이 아니다. 그는 보통 빵처럼 먹은 것이고 그 빵도 그에게는 보통 빵이 되어 아무런 은총도 내려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올바른 마음과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모셔야 한다. 아울러 성체를 받아 모시는 우리는 뭔가 달라져야 한다. 천상 보약을 먹고도 아무런 변화나 진보가 없다면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요, 그러한 가지는 잘려질 것이다. (요한 15,2)

우리는 가뭄 속에서 단비를 기다리듯 무엇인가 불안하고 충족되지 않는 우리 삶에 예수님을 모시도록 하자. 내 삶 안에 은총 예수님이 사시도록 하자. 그래서 바로 사도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갈라 2,20)”라고 할 수 있도록 하자. 먹어야 산다. 생명의 빵을 자주 정성껏 모시자. 주여! 그 빵을 항상 저희에게 주십시오. 아멘. (창인동 보좌신부)



선물 이야기

사람들은 ‘존경이나 친근 또는 애정의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선물을 주고 받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을 찾아서 선물을 주고 받는다. 대개 명절날, 축일, 생일, 결혼이나 회갑날, 기념일 등을 당하면 정성스럽게 선물을 준비한다. 매우 아름다운 관습이 고연제까지나 계속되어야 할 일의 하나요, 권장되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요즘은 이 선물이 큰 짐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가끔 있다. 존경·친근·애정, 어느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데도 선물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 분위기라고 하는 것이 그토록 소시민의 심장을 죄어대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를 일러 ‘올며 겨자먹기’라고 하던가. 인물대사 중의 대사인 결혼과 죽음에 따른 축·조의금도 문제이다. 전통적인 관습에 따라 상호 부조의 성격이었던 것이 점차 그 모습이 변하고 있는 것이다. 기쁨이나 슬픔의 뜻을 담은 몇자루의 조값치고는 너무 하다. 화폐가치가 없어서인가, 아니면 분수모르는 체면치레때문인가. 그것도 아니면 뇌물화로의 과도기 현상인가.

좋은 뜻이 담긴 선물은 받는 사람의 마음도 기쁘게 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선물로 받은 꿀 상자가 곁은 멀쩡하면서 속으로 들어갈수록 무른 고무마처럼 죽이 다되었을 때의 기분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젠 온전히 상품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상인들의 의식구조에 크게 명들어 있는 현상의 하나다. 스승의 날이라고 제자들이 정성을 다해서 마련한 선물이 조잡한 장난감처럼 생겼대서야 어디 쓰겠는가. 국산품을 애용하라고 가르친 보상으로 조잡한 국산 전기제품을 받았으니, 이것도 인과응보인가. 자동차를 만드는 큰 기업가들부터 시작해서 구멍가게를 지키는 아주머니까지, 제발 우리 모두 성실해 보자.

숲 정 이 산책



빨리 완쾌토록 기도하십시오

“오송희 사건” 재판 과정을 지켜본 우리의 주장

□ 교리 해설

예수 성심 聖月

1. 지난해 12월 8일자 도하 각 신문에 보도되어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한 군산 제일 고등학교의 이 사건은 처음부터 경찰관의 헛된 공명심에 의해 침소봉대되어 발표되었으며 심한 고문을 가해 조작된 사건이다.

옛부터 수많은 성인 성녀들이 예수의 성심을 은총과 사랑의 샘으로 공경하고 의탁해 왔었다. 주님의 사랑받던 사도 요한을 비롯하여 중세기의 여러 성인들, 즉 성녀 젤뚜라, 성 보나벤투라, 성 베드로 까리시우스, 성 요한 유데스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2. 피고인들은 정당한 법의 절차없이 지난 82년 11월 2일부터 불법 연행되어 11월 25일까지 불법으로 구속되었으며, 비록 혐의자라 하더라도 확정판결이 있기까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법치주의 기본 원리와는 상반되게 9명의 피고인 외에도 이 사건과 연관된 사람들이 재판전에 미리 파면, 직위해제 되었음을 중시하면서 민주주의 법질서 확립과 무고한 시민들의 보호를 위해 그동안의 피해를 보상하고 전원 원상복귀 시켜줄 것을 촉구한다.

그러나 예수성심께 대한 신심이 공식적으로 온 세상에 전파되게 된 동기는 예수께서 성녀 말가렛 마리아에게 발현하신 것이라 하겠다. 1673년 12월 27일 사도 요한 축일에 예수께서 불탄서 어느 「방문회」 수도원의 한 겸손한 수녀에게 발현하시어 당신의 성심을 보이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나의 성심(심장 또는 마음)은 사람들에게 대한 사랑과 특별히 너에게 대한 사랑으로 불타고 있다. 이제 너의 노력으로 이 사랑의 불꽃은 널리 퍼지게 될 것이다. 나의 성심은 사람들에게 홍수같은 사랑을 베풀고 성덕과 구원의 은총을 풍부히 내릴 것이다.”

3.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비행기(통닭구이) 고문, 물고문, 전기고문 등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고문을 피고인들에게 가해 범죄사실을 허위로 자백토록 한 사실이 법정에서 폭로되었음에 충격을 금치 못하면서 이같은 인간의 존엄성을 유린하는 비인도적, 비인간적 고문행위가 하루 빨리 근절될 수 있는 안건장치가 당국에 의해 자발적으로 마련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날부터 예수께서는 당신 성심을 말가렛 마리아수녀에게 자주 보이셨고, 특히 첫금요일에 자주 발현하셨다. 예수 성심은 태양보다 빛나고 수정같이 투명하며 눈에 띄는 상처를 지니고 가시가 둘러싸인 가운데 불꽃이 일고 있었다.

4. 광주사태,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등 잇을 수 없는 일련의 비극적 사태들에 대한 견해와 피력을 이적행위로 몰아세우고 국가보안법을 적용시켜 처단함은 독선이며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엄연한 정치적 탄압행위이다.

이때 예수께서는 보상을 위한 첫금요일 영성체와 성시간, 성심상본 공경, 개인가정 및 국가를 성심께 봉헌할 것과 또 성심축일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셨다.

5. 피고인들은 현직 또는 전직 교사들로서(8명은 현직교사, 1명은 전직교사) 학생들에게 정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인간다운 참 삶이 무엇인지를 열심히 가르치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몸부림치던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제자들까지 동원되어 스승을 고발해 하는 비극은 하루빨리 이 사회에서 근절되어야 하겠다.

주께서는 당신 성심을 보이시며 “나는 사람들을 이렇듯이 사랑하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고 있건만 수많은 이들로부터 더우기 나와 친근한 유대를 맺고 있는 이들로부터 자주 배은망덕과 무시와 천대를 당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당신 성심께서 베푸시는 사랑을 사랑으로 보답하고, 성심께서 당하시는 고통을 기도와 희생과 보속을 통해 위로하고 보상하기를 바라셨다. 예수성심 축일은 1856년 비오 9세때 전교회의 공식 축일로 제정되었다.

6. 피고인 이 광웅씨와 박 정석씨는 하느님을 믿는 천주교 신자이다. 유신론을 그 체제로 하는 그리스도교 신앙인이 무신론을 체제로 하는 공산주의자가 될 수가 없음은 만인이 주지하는 사실이다.

예수성심 공경은 인간 예수의 심장을 따로 분리하여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천주 성자위와 결합된 예수의 마음을 공경하는 것이다. 예수성심은 신인(神人) 그리스도의 원의와 인식, 사랑과 지혜, 정서와 감정의 총추이고 인간에게 베푸시는 모든 은총의 근원이다. 예수성심은 인간에 대한 하느님 사랑의 표현이고 인간의 보답을 바라시는 원의이시다.

또한 이 광웅씨는 문학을 좋아하는 시인으로서 시집을 읽고 모으고 보관하는 지극히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지 결코 시를 통해 사회주의를 배우고 용공분자가 되려는 의도는 조금도 없었음을 확인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우리 때문에 죽도록 피로와하신(마태 26, 38) 예수성심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을 이루려고 애쓸 때 우리는 비로소 성심성월을 합당히 보낼 수 있을 것이다.

1983. 5. 31

천주교 전주교구 정의평화 위원회

해외여행 업무개시
국제여행사 개설

전 일 관 광

전 화 ⑥ 6666~8

대한항공 국내외 대리점
설악산·제주도·전국명승지
성지순례(국 내외)안내

□ 회 소 식

독사뱀 물린 사람
백발백중(五代術)
전문치료 단시간 완쾌
연락처-전주시 전미동 1가 474번지
전달리 시내버스 종점
정미소 뒷집
전화 5-3544
송 준의(발라바)

【SS】 FASHION 전주 특약점

버 킹 검 위 크 엔 드
로가디스 간 이 북
소사이머티

런 던 포 그
세계적인코트의명문

NEW MEN

전주시 중앙동 3가
삼화약국 옆 ④ 4 4 5 1
주인 유 율리안나

젤 린 저 주 니 어 북



□ 프란치스코 재속 형제회 1일 피정

전북지부 프란치스코 형제회 1일 피정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형제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1. 일 시 : 6일 오전 9시30분~오후 5시
2. 장 소 : 전주 노송동 성당 강당
3. 감 사 : 이 용안 관구 지도신부님, 김 용태 전북 지도신부님
4. 회 비 : 1천원
5. 지참물 : 도시락 · 기도서 · 성경 · 성가집 · 필락북주

□ 재미(在美)교포 무료실료를 위한 긴급 빨랑카 요청

현재 재미 교포를 위한 무료실료 교육이 휴스턴, 워싱턴, 시카고, 아틀란타(전주교구 신부님이 사목하고 계신), 엘에이에서 실시되고 있는데, 무료실료 전국 본부에서는 이들을 위한 빨랑카를 긴급 요청해 오셨다. 특별히 무료실리스타 형제 자매님들의 영적 빨랑카를 부탁드립니다. 전주교구 무료실료 사무국으로 보내시면 된다.

□ 전주교구 200주년 기념 비엔나 슈베르트 이중주의 밤

200주년을 앞두고 신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촉구하기 위하여 전주교구 200주년 사무국에서는 “비엔나 슈베르트 2중주단”을 초청하여 음악의 밤을 갖기로 하였다.

게오르그 하우어씨와 엘레오노레 로나야사는 현재 비엔나 대학 교수로 있으며 몇차례 한국에 내한하여 국립극장에서 연주회를 갖어 절찬을 받으며 있다.

27일 저녁 7시30분 중앙성당에서 열리게 될 음악의 밤은 제1부에서 미사와 함께 그레고리안 성가를, 제2부에서는 슈베르트의 송어, 즉흥곡 등 다수가 연주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곧 팸플릿으로 인쇄되어 배부될 것이며 입장권은 각 본당 사무실을 통하여 판매할 계획이다. 200주년 전주교구 사업을 위하여 교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오송회(五松會) 사건이란?

지난해 12월 8일 전라북도 경찰당국에 의하여 발표된 이 사건은 “용공서적 탐독과 복제 방송을 청취하면서 용공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기도”한 혐의로 군산 제일고등학교 교사 8명과 모 방송국 과장 1명 등 9명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고 3명은 불구속 입건 1명은 훈방 조치된 사건이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이들은 “현 정권을 타도하고 용공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조직적인 테러행위를 감행할 수 있도록 조직화해야 된다는 신념하에 주도자 이 광웅은 동료 교사 11명을 포섭, 그중 5명으로 불온 씨클인 오송회를 조직했다”고 했다.

구속 기소된 이 광웅씨, 박 정석씨, 전 성원씨 등 9명은 그동안 전주 지방법원에서 재판받을 때 지난 5월 24일 이 광웅씨는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 박 정석씨는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전 성원씨는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으로, 나머지 6명의 피고인은 선고유예의 선고를 받고 제2심에 항소중이다.(이 광웅씨와 박 정석씨는 군산 팔마 본당과 이리 창인동 본당의 천주교 신자분들이다.)

요십이(513) 김병오



직원 채용 공고

1. 모집 인원 : 일반 (사무직) 남자 0명
2. 응시 자격 : ①천주교 신자, ②고졸이상 학력소지자, ③만 30세 미만, 병역필 또는 면제자, ④주찬 부기 각 3급 이상 자격소유자, ⑤전주시 거주자
3. 제출서류 : ①자필 이력서 1통 ②졸업증명서 1통 ③주민등록등본 1통 ④병적증명서 1통 ⑤신원증명서 1통 ⑥자격증 사본 각 1통
4. 접수기간 : 1월~8일, 17:00
5. 전형방법 : 서류, 면접후 통지
6. 전형일자 : 10일
7. 접수처 : 당조합 사무실 (07522) ◇신청 유경험자 환영, 서류는 반환치 않음 1983. 5. 29

윤정이 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이강노

- 혼수(회갑) 옷감
- 특수 파티복
- 고급 침구류
- 각종 솜 일체
- 커튼지

도매상

서울주단

☎ 0453 05095
전주 중앙성당 정문 옆
김(안토니오)
박(베르니카)

국내 최초로 상판에 이어
몸체가구도 KS마크 획득

한일싱크

전북 총대리점

- 주방설계
 - 씽크대수리
 - 가스렌지
 - 주방용기
- 전주 중앙성당 정문 바로옆
전화 0841 야간 09874
박 안 당 (윤규)

칼라 사진 45분 완성

컴퓨터 시스템의 현상 인화기 신설

금번 금성사진 45분 완성 칼라 현상 인화기를 신설하고 83년 5월 23일부터 가동하오니 많은 성원과 지도연달 있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 사이즈는 3×5, 5×7, 8×10등 우량한 사진을 처리

미영칼라현상소

☎ 3651-9286

전주시 중앙동 3가 30-1 전병전(토마스모어)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1. 참사회 : 7일 오전 11시
2. 라디오 연수회 : 6일 오전 9시30분~오후 3시50분, 대상-초·중·고 레지오 단원, 참가비-2천원
3. 웰요성서 : 매 월요일 오후 8시~9시, 가톨릭센터 3층, 대상-원하는 사람, 월 1,500원, 범위-출애굽기
4. 사무장 연수회 : 8일 오전 10시~9일, 장소-가톨릭 센터, 회비-1만원(본당 부담)
5. 성령쇄신 봉사자 모임 : 10일 오후 8시, 장소-가톨릭 센터, 대상-성령쇄신 세미나 받은 분들
6. 교회교사 성서피정 : 11일 오후 2시30분~12일, 장소-가톨릭센터, 준비물-참가비(원), 성서, 성가집
7. 노동사목 연수(3차) : 11일~12일, 장소-가톨릭센터
8. 4지구 교리교사 야유허회 : 6일, 장소-구아
9. 4지구 중·고등학생 체육대회 : 5일 오전 8시부터, 장소-해성 중·고 교정

(중양)

전화 ①1711~3

주임 신부	문정현
수석 보좌	한기철
보좌 신부	안철민
사도 회장	김인철

1. 본당 주보축일 : 10일, 새 성당에서 10시30분 미사
 2. 신축성금 모금 위한 미술전 : 동양화-김준식 화백, 서양화-김테레사, 기간-22일~26일, 가톨릭센터
 3. 한기호(세례자 요한) 신부님 영명축일 : 24일
 4. 성지순례 : 19일, 장소-미리내, 대상-레지오 단원
 5. 고등학교 학생회 시화전 : 4일~6일, 장당 앞뜰
 6. 신축성금 신입해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10만원-장영주·최진규·김후정·손문·한정순·박덕제·조영숙·이종명·강신민, 이종암·서창원·윤명기·김대곤·김영미·변경자·정계순·신희·허창인·김금순·육명자·정만덕·이희용·임효숙·최공영·전자석·김관우·김영림·정문희·김주영·이순옥·김명철·황의철·박순남·조삼현·최영우·노옥희·최유성·김용서·김금옥·노현주·양순자 신축 성일 누계-181,907,600원
신축 납입액 누계-57,380,119원
- 지난주 봉헌금 : 943,640원 교무금 : 701,800원

(노송동)

신부 ①0969 주임 신부 김용태
수.사 ②7032 보좌 신부 나춘섭
사도 회장 이홍재

1. 금주의 구역회합 : 6일-남노 제3구역, 7일-남노 제1·2·4구역, 인후동 제1구역, 8일-우아동 제1·2·3구역, 중노1가 제4구역, 9일-중노1가 제3구역, 중노2가 제1·2·3·5구역, 10일-우아동 제4구역, 중노2가 제6·7·8·10구역
 2. 혈제회 월례회 : 오늘 공식미사 후
 3. 성전 청소담당 : 치명자의 모후Pr, 6일 오전 10시
 4. 미사시간 엄수 : 각 미사에 늦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5. 중노1가 각 구역장 명단 발표
제1구역 : 구역장-오정옥, 부구역장-김수진
제2구역 : 구역장-백옥님, 부구역장-오정순
제3구역 : 구역장-이중철, 부구역장-황향준
제4구역 : 구역장-박제봉, 부구역장-양광식
제5지구 : 구역장-이명래, 부구역장-권영옥
제6구역 : 구역장-박정규, 부구역장-이혜수
- 지난주 봉헌금 : 338,700원 교무금 : 122,500원

(덕진)

신부(3)2182 주임 신부 김봉희
전화 수녀(72)1222 보좌 신부 정양현
사무(72)6259 사도 회장 양상열

1. 성심부녀회 월례회 : 오늘 공식미사 후
 2. 까리따스 자모회 : 7일 오후 2시(특강 있음)
 3. 오늘 4지구 중·고 체육대회 : 성원 바란
 4. 첫영성체 교리 :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5. 학생 젊은이들은 주일 9시 미사에 꼭 참여 바람 (어린이 미사는 주일 오후 3시)
 6. 다음주일 모임 예고 : 성모회(60세 이상 할마니)-공식미사 후, L·M 푸리아회-오후 2시
- 지난주 봉헌금 : 527,165원 교무금 : 792,000원

(복자)

전화 ②5238번 주임 신부 권영균
사도 회장 조성호

1. 본당신부님 영명축일 : 13일
2. 푸리아 회합 : 다음주일 오후 2시
3. 성우회 :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4. 4지구 중·고학생회 체육대회 : 오늘 해성중·고 교정
5. 봉헌금 미수 완납 바랍니다
6. 복자신문조합 광고교육 : 일시-22일 선착순 마감
장소-신협연수원·동학사·유성온천, 회비-5,000원
7. 복자신협에서는 앞으로 제세금(재산세·전화·전기·수도요금·학생수료)을 수납합니다, 많은 이용 바람

8. 사무장 연수회 : 8~9일, 교구청에서
 9. 주일학교교사 성서피정 : 11~12일 센터, 회비 2천원
 10. 결혼 : 6일 오전 11:30, (10시 어머니미사 없음)
신랑-안철조(도마), 신부-유경순(세시리아)
 11. 금주전례 : 해설-황만금, 독서-①이갑진 ②장기연
차주전례 : 해설-김재식, 독서-①유기순 ②천 건
봉헌-독서하신 분
- 지난주 봉헌금 : 434,910원

(서학동)

전화 ②2276번 주임 신부 김병환
사도 회장 한형수

1. 유아세례 : 공식미사 전(매월 첫째 주일)
 2. 영세식 : 24일(성요한 세자 대축일) 저녁 8시
 3. 영세자 특별교리 : 14일~22일까지, 저녁 8:30
 4. 반장 월례회 :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5. 자모회 모임 : 10일 오전 10시
 6. 사제양성 후회회 : 관심을... 익명 1분(현재 25명)
 7. 4지구 중·고생 체육대회 : 오늘 해성학교 운동장
 8. 다음주 전례담당 : 독서-①박장춘 ②박경환
신자들의 기도-박형식·김금배·김수길
- 지난주 봉헌금 : 245,215원 교무금 : 201,500원

(윤정이)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김종길
수.유 ④9567 사도 회장 김수길

1. 사도회 월례회 : 오늘 공식미사 후
 2. 성지순례 : 6일 오전 6시 출발(회비납자 오늘까지)
 3. 첫영성체 교리 : 매주 화~금요일 오후 4시
 4. 미사시간 변경 : 차주부터 새벽미사(월·수)-5시30분
 5. 금주전례 : 해설-홍성조, 독서-강 삼·백시현
기도-이규철·남상용
차주전례 : 해설-홍성조, 독서-황현도·김남근
기도-김경주·허옥순
- 지난주 봉헌금 : 152,745원 교무금 : 469,300원

(전동)

신부 ①6208 주임 신부 김병열
전화 사무 ②3222 보좌 신부 박찬길
수녀 ③8347 사도 회장 이종두

1. 유아세례 : 학생미사 후
 2. 사도회 : 다음주 공식미사 후
 3. 자모회·장우회·성마리아 푸리아 : 다음주
 4. 방ziger 삼회 전주 피정 : 6일 오전 9시, 노송동성당
 5. 본당신부님 M. E. 주말갈습 참가 : 4일~6일
 6. 월요기도회 : 매주 월요일 저녁미사 후, 장당에서
 7. 다음주 전례
아침미사 : 해설-박종우, 독서-①최정식 ②최중만
공식미사 : 해설-이영희, 독서-①이영태 ②유기동
저녁미사 : 해설-김윤주, 독서-①김희진 ②이영주
- 지난주 봉헌금 : 669,540원 교무금 : 712,500원

(파티마)

신부 ②0915 주임신부 김영일
수녀 ④8404 사도회장 황희상

1. 푸리아 : 오늘 오후 2시에 회합 있습니다
 2. 사도회 월례회 : 오늘밤 미사후에 있습니다
 3. 중·고생 4지구 체육대회 : 성모회에서 수고합니다
 4. 첫영성체 교리반 : 3일 오후 5시30분부터 시작
※ 국민학교 3학년 이상
 5. 토요일 특전미사 : 중·고생 미사와 아울러 매 토요일 오후 5시30분
 6. 수녀원 축대공사 : 신자들의 적극 참여 바랍니다
 7. 마니피갓 합창단 : 오늘 10시 미사에 수고하십니다 (지난주 정정)
 8. 성지순례 : 30일, 80여명이 천호·여산·나바위를 무사히 다녀왔습니다
- 지난주 봉헌금 : 238,165원 교무금 : 294,500원